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35. 144000인

2013. 09. 01.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 맞은 자의 144000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실상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면서 7장의 다른 구절들을 살펴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7:9~12]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144000인의 인치는 시기가 1833년 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고 하시고, 그 이유를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끝났습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실 것이지요?

답: 예,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를 1831년부터 본다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때 말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 시대를 1798년까지로 볼 때의 연대이고, 두아디라 교회 시대를 1517년으로 보면 사대교회 시대를 1798년까지로 보게 되니까, 빌라델비아 시대는 1798년부터 1844년까지가 됩니다. 아무튼 빌라델비아 시대는 1844년에 끝이 난다는 것은 동일한데, 그 기간에 별이 떨어지는 천연계 현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바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것인데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이름도 함께요. 그런데 7장에 인치는 일은 여섯째 인을 떼 후에 아직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기 전에 있는 사건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와 일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7장의 인치는 사업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있을 일이라고 보는 것은 계시록 예언의 진행으로 보아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 시기에 어떤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그 시대에 있어야 했지요?

답: 참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네요. 우리가 일곱 교회에 대하여 살필 때에 책망이 없는 교회가 서거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시대는 사대교회 시대 다음이지요. 종교개혁 시대 이후입니다. 사대교회 시대는 개혁운동 결과에 도취되어서 진정한 개혁을 계속하는데 실패한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빌라델비아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데 이 시대는 하늘에 열린 문을 둔 시대입니다. 열린 문은 계11:19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까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빌라델비아 시대의 열린 문, 열면 달을 사람이 없는 그 열린 문과 하늘 성전이 열리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이유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치는 시기는 빌라델비아 시대에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성전이 열려서 언약궤를 보여준 것도, 인치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인치는 것과 언약궤를 보여준 것은 또 어떤 관계가 됩니까?

답: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비석이 들어 있지요. 즉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입니다. 이 돌비에 기록된 십계명은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신4:13에 있습니다.

[신4:13]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 말씀은 십계명이 언약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지요. 언약에는 인을 칩니다. 언약을 하는 두 사이에 인을 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도 인에 해당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인에는 그 인을 치는 분의 이름이 있지요. 그것이 국가적 관계라면 인을 치는 사람의 신분과 지위 등을 인치는 언약서에 기록하고 인을 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아무개, 요새로 하면 박근혜 그리고 국새를 찍지요. 십계명에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넷째 계명입니다. 거기에는 십계명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물론 2,3계명에도 이 이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직위는 없지요. 넷째 계명에는 창조주라는 직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 영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이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서에 인치는 조건을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과 넷째 계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보여주며 성전이 열렸다고 말씀한 것과 빌라델비아 교회에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것과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 그리고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에 여섯째 인을 떼는 후에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종합적으로 그 시대에 있을 사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4. 십계명이 언약이라는 것을 확실한데 넷째 계명이 인에 해당된다는 것은 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닙니까? 그런 예라고 있나요?

답: 예, 고고학적으로 그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1931년에 고고학자 코르섹(V. Korosec) 기원전 15~13세기 히타이트족속의 문서들을 분석하여 조약문서들에 해석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히타이트족은 성경에 나오는 헷 족속입니다. 코르섹의 논문을 조지 멘덴홀(G. Mendenhall) 교수가 1954년에 히타이트 조약문서들의 형식이 출애굽기 19~24장에 기록된 언약들과 상응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옛 문서 중에 종주국인 헷 족속의 왕 무르실리스(Mursilis)와 봉신국 왕 두피 테슉(Duppi Tessub)과 맺은 언약 판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의 비석에 제일 가운데 조문에 종주국 왕이 인을 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당시 언약을 체결하는 형식이었지요. 멘덴홀 교수가 그 언약서와 십계명판을 대조 연구한 결과 십계명이 언약서인데, 그 한

가운데 조문인 제4계명이 언약에 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내었고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멘덴홀 교수는 구약 언약에 대한 연구에 뛰어난 개신교인 학자입니다. 이분의 연구발표로 구약의 언약을 연구하는데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하는 학자이지요. 헛 족속의 언약서의 발굴로 십계명 언약서의 가운데 조문인 제4계명이 인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5. 예, 그런 사실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인치는 때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해당된다는 목사님의 견해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만, 인치는 것이 그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요?

답: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장의 장면은 그 시기에 특별히 해당된다고 생각할지라도 인치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면서부터 모든 시대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9장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중에 행해지는 악을 인하여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하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마에 표하는 것은 이마에 인치는 것과 동일한 사실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부터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계시록 7장의 장면을 일곱 인을 떼시는 것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역사적 시점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바로 빌라델비아 시대이고 천연계 현상으로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는 후에 있을 것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6. 인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이름이 여호와인데 이마에 인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주 잘 아는 백성이라는 표가 되었는데, 그것이 또 넷째계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묘한 관계입니다.

답: 그렇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표라고 계시해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의 인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 이름 여호와를 깊이 인식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안식일에 예배하는 시간에 참석하는 것으로 인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겔20:19,20을 한 번 읽어보시지요.

[겔20:19,20]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20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장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에 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함으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이 그런 뜻이 확실하지요?

7.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 확실합니다.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인과 관계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즉 예언된 천연계의 현상들이 있는 후에 특별히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가 선포되어

야 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즉 예언된 천연계의 현상이 있는 후에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12장에 가서 자세히 이야기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무렵에 오직 성경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창세기부터 한 구절씩 오직 성경과 성구사전만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을 따라 연구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요. 창세기 40:8에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거든요. 성경 해석을 할 때 오직 성경이 서로 해석하는 구절을 바르게 찾아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고전4:6) 이 사람은 정말 그렇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니엘서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읽고 2300주야가 2300년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냈지요. 그래서 그는 2300년이 기원전 457년에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 끝이 1844년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외쳤지요. 물론 그때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의 해석이 잘못 되었는데? 예, 재림한다는 해석은 잘못 되었지만, 2300 주야가 기원전 457년에 시작해서 1844년에 끝난다는 해석은 옳았습니다. 그때 성소가 정결하여 진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늘에서 성소정결봉사를 시작할 때라는 것을 그 후에 다른 사람이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와 천연계 현상이 있었던 직후와 다 연대가 맞아떨어집니다. 열린 문이 하늘 성전의 문이라는 것도 옳은 이해가 되었지요. 성소정결 문제가 바로 하늘 성소에 대한 것이었으니까요. 성소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게 되니까 당연히 언약궤를 보게 되었지요. 계시 중에 요한이 본 그 언약궤를 성경에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 돌 판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제7일 여호와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세계의 기독교는 구교나 신교나 다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는데,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예언과 역사와 일어난 사건이 완전히 일치하지요. 그러니까 일곱 인을 떼시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인치는 사업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천연계 현상이 일어난 시대에 있었다고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합리적이라고 믿습니다.

8.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계시록이나 다니엘서의 예언은 역사적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있는 인치는 것과는 좀 구별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7장의 인치는 장면을 보편적인 곳에 적용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적용하고 7장의 역사적 장면에 적용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좀 예언이 역사적 어느 시기에 성취될 것이라는 기본적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군요.

답: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잘 정리하셔서 감사합니다.

9. 그러면 인과, 144000과, 12지파에 대한 것이 다 설명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답: 144000에 144라는 수의 형태에 대한 것인데요, 형태라는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144가 계시록에 숫자로 아주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에 하나님과 관련하여 이 수의 형태는 어떤 완성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7장에 12지파 12000, 이것이 12, 12의 수의 형태잖아요. 또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가로 세로가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이것도 12, 12의 형태이지요. 새 예루살렘은 12 기초석에 12 대문입니다. 이것도 12, 12이고, 그리고 22장에 가면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그것은 12 종류의 과실이 달달이 열립니다. 즉 12 달에 각각 다른 열매가 달린다는 말인데, 이것도 12, 12 형태입니다. 또 새 예루살렘 성벽의 두께가 144 규빗입니다. 모두 12,12의 형태를 가집니다. 12, 12가 곱하면 144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계시록의 숫자 구조에 의하여 144000인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0. 구원의 완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답: 좀 애매한 말 같지요? 히브리서에 보면 제가 말하는 뜻을 이해할 말씀이 있습니다. 히11: 한 번 읽어봅시다.

[히11:39,40]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40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다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는 일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히브리 11장에는 다 구약시대의 신앙의 선조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고 증거를 받았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지 않았으면 그들의 믿음이나 올바른 삶이 아무것도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에 144000인이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데 심판하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144000명으로 표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증거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이 지구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시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12장과 14장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 그러니까 완성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 지상에 구원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일이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인 것 같네요.(그런 의미지요.) 그렇다면 이 무리들은 아주 중요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그렇지요.) 아무튼 144000인은 중요한 임무를 맡은 특별한 무리들인 것 같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7장에는 인치는 장면으로 14장에는 이미 인을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있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인격적 상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12. 예, 그때 다시 성경구절과 함께 말씀을 듣기로 하고 지금은 7장의 다음 구절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답: 그렇게 합시다. 12000명씩 인 맞은 사람들의 수를 기록한 다음에는 다른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9,10절을 읽도록 하지요.

[계7:9,10]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누구냐 하는 데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앞에 기록한 144000명이나, 다른 무리들이나, 이런 논란이지요. 서로 다른 무리라고 보는 학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같은 무리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8절까지는 요한이 본 것이 아니고 누군가 숫자를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는 보았습니다. 숫자를 들을 때에는 숫자를 알게 되지요. 그러나 그 숫자의 무리를 눈으로 보면 보는 상태로서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정열해서 서 있을 때 일일 세면 몰라도 144000명이나 되는 대 군중이 한데 어울려 서 있으면 누가 능히 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앞에서 그 수가 1440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숫자로 들었던 그 큰 무리가 이렇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도록 많은 무리로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또는 천사들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고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계시를 보는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두 이 사람들은 바로 144000명을 한꺼번에 다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13. 다른 무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볼까요?

답: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앞에는 계수된 무리이고, 뒤에 나온 무리는 셀 수 없는 무리이다. 이것이 벌써 다른 것이 아닌가. 하나는 특별한 무리, 즉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14:4), 다른 하나는 각 시대의 승리한 성도로 남아 있는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두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니까 아무튼 인 맞은 사람의 수에 들도록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14. 감사합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 마쳐야 하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144000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실히 다 알 수 없어도 인 맞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간절합니다. 우리가 다 인 맞은 자로서 재림의 날에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